



한·양방의 첨단 의술 접목으로 관절·중풍·비만 치료를 극대화-백산한의원

지 하릴 석계역 서쪽 맞은 편으로 보면 5층 건물의 백산한의원(T. (代) 909-6077)이 눈에 들어온다.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는 최선의의료기기를 갖추고 한의학에 양의학을 새로이 접목시킨 첨단치료요법을 개발, 특남은 치료방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백산한의원인 한방치료분야의 새로운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저변에는 李敏永원장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깔려있다.

李敏永원장은 진료에 있어 체질적 특성과 원인규명은 물론 과학적인 의료시술을 최대한 활용해 극대화를 꾀한다.

편안이나라 의료처방 못지않게 환자들의 정서적인 내면 또한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전문화된 진료실이다 쾌적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내부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각층별로 나뉘어져 있는 진료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탁 트인 공간에 최신 의료기들이 적소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진료환자를 위한 李敏永원장의 남다른 배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李敏永원장은 진료방법에 있어서도 예약제 진료에 근간을 두고 있다.

▶ 최신 치료/법인 테이프치료법으로 풍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인영 원장(테이프 요법을 행하던 치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